

# “분초 아까워” 30분마다 이동...“버팀목 될 것” 우산 퍼포먼스

## 공식선거운동 첫 날...유세현장 가보니

31일 자정을 기해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각 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의 치열한 표심(票心) 경쟁이 펼쳐졌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광주에선 더민주에 대한 반감 등 민심이반을 이유로 다소 어려운 선거를 예상했던 더민주는 인재영입 등 당 변화와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이젠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는 눈치다.

◇승리 향한 열전 돌입=1분, 1초가 아까운 후보들은 동이 뜨기 전부터 30분마다 이동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근로자 대기소, 버스 차고지, 농수산물 시장 등을 찾아 강행군에 나섰다. 더민주의 이날 갑·을로 분리된 서구·북구·광산구에서 구별로 2인 후보의 유세차량으로 서구 윤천저수지·북구정 4거리·광산구 임방울대로 부근에서 합동 유세를 벌였다.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 서구에서 더민주 양향자 후보는 윤천저수지를, 국민의당 천정배 후보는 마재우체국을 첫 유세 현장으로 선택했다.

후보 선거사무소들이 들어선 풍금사 거리에는 김연옥(새누리당)·강은미(정의당)·김희중(무소속) 후보와 각 선거운동원이 교차로 구석마다 자리를 차지하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쳤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광산 읍에서 더

## 새벽부터 심야까지 강행군

## 마주보며 “2번” “3번” 연호

## 유세장 선점 놓고 신경전도

민중 이용섭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불과 10~20m 안팎의 거리에서 “기호 2번”, “기호 3번”을 연방 외쳐댔다. 금호터미어 광주공장과 각화동 농산물시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어깨띠를 두른 후보와 지지자들이 모여 승리를 향한 열전을 벌였다.

선거벽보도 등장했다. 국회의원 후보 4명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 3명이 출마하는 동구에서는 동명동 거리에 선거관 리위원회 위탁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이 선거벽보 7장을 게시했다. 정당별 출정식도 이어졌다.

◇북구 을 최대 격전지 부상=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1시20분 광주시 북구 양산동 A빌딩 앞 도로. 더민주 이형석 후보는 빌딩 앞 도로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약력·공약 등이 적힌 명함을 돌리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 후보와 20~30m 떨어진 곳에선 파란색 상의를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 5명이 우산을 흔들며 1t짜리 선거홍보 유세

차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우산운동’은 광주경제를 든든히 받치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미로, 이 후보의 선거운동의 키워드는 ‘더불어 성장·불평등 해소·안전한 사회’다. 이 후보는 행인들을 만날 때마다 광주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집체한 광주역에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오전 11시40분 북구 양산동 B식당을 찾은 국민의당 최경환 후보는 식사 중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연두색 상의를 입은 최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약수를 정하며 “광주에 새 희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의 선거운동원들 역시 “기호 3번”을 외쳐댔다.

최 후보는 이날 새벽 북구 대촌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금광공사 방문을 시작으로,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유세차 홍보, 거리홍보 등으로 이어갔다. 최 후보의 선거운동 키워드는 ‘아권재민·정권교체’다. 특히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북구 을에 복합레저생활스포츠특구를 조성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두 후보를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시민 정모(40)씨는 “평소 지지하던 분을 실제로 뵈게 될 줄 몰랐다”며 “꼭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업어 주고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31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서울 독립문공원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서울 서대문구에 출마한 이성현 후보를 업어주고 있다.



만세 부르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3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홈플러스 앞에서 열린 안산 집중유세에 참석해 안산시 출마 후보자들과 만세를 외치고 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 오후 서울 관악플라자 앞에서 관악구에 출마한 김성식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민주-국민의당 야권연대 신경전 가열

### 정장선 “목표의식 하향 조정...우리당 열세 지역부터...”

### 안철수 “더민주가 먼저 후보 사퇴 시키고 양보해야”

야권연대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민주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단일화를 수용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내부 의견조율부터 하라’며 역공에 나서며 모습이다.

더민주 정장선 총선거대책장은 31일 YTN 라디오에 출연, “우리 당 후보가 약한 지역도 얼마든지 단일화를 하겠다.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지수 후보와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경쟁하는 서울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예로 들어 “우리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가 낮게 나오는 곳도 하겠다”고 했다. 정 단장은 또 총선 목표와 관련, “당초 130석을 목표로 했다가 수도권

과 호남 등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해 110~120석 정도로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수도권에서 야권분열이 되면서 경합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야권이 분열되면 기권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가 대폭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데에는 현장의 급박함과 함께 단일화 마감시한이 다가온 것도 있지만 야권 단일화 명분을 축적, 총선 패배시의 책임론에 대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부터 경제심판론과 단일화 촉구를 동시에 강조하는 ‘쌍끌이 전략’을 쓰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은 야권연대와 관

련, 그동안 수세에서 벗어나 더민주에 역공에 나서며 모습이다. 안철수 상임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당 대 당 연대를 얘기했는데, 김 대표는 (당 대 당) 연대가 없다고 하지 않나”라며 “사장과 대주주가 내부 이견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며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민의당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하고 있다. 패권주의 발상”이라며 “더민주가 먼저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수도권 일부 후보들이 더민주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나서고 있어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연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기복제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종인·안철수 주말·유일 호남유세 대전

### 여야 지도부 첫날 서울 세몰이

### 0시부터 ‘기선 제압’ 강행군

4·13 총선에서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이번 주말 나란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는다.

지난 31일 더민주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일 전북을 시작으로 2일 광주, 3일 제주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안 대표 역시 오는 2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을 예정이다.

두 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 호남 방문 계획을 밝힌 건 호남 민심이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이날 서울 일대를 돌며 ‘기선 제압’을 위한 지원 유세 경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서울에

서 일제히 선거운동을 시작해 종일 양보 없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0시부터 동대문 소공동, 동대문 패션거리, 종로 일대를 돌며 선거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구로(강요식), 마포(안대희), 마포(김성동) 등 11개 지역구를 잇달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퓰리즘 정당’, ‘운동권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 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남대문시장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종로(정세균), 중·성동갑(홍익표), 동대문(민병두) 등을 돌며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했다. 경제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의도에 따라 출정식 장소도 남대문시장으로 잡았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이 집권 이후 8년간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주

장하면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워 표몰이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세운전자상가를 찾아 ‘뽀 아카데미’(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학습) 수강생들을 만나 청년 창업의 고충을 들었다.

유권자 대면 접촉보다는 미래 일자리·먹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충도 성향인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국민의당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안 대표는 서울 지역구 후보 12명에 대한 개별 지원유세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강북갑의 김기욱 후보, 성북갑의 도천후 후보, 종로의 박태순 후보 지원에 나선 안 대표는 유권자를 상대로 양당 구도 해파를 호소했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화정 광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